

“마음 놓으세요, 이리도 복이 없는 분이라니! 들어요, 들어.”

그리고는 식구들과 아침으로 먹으려고 만들어둔 식사거리를 그녀에게 내주었어. 여자는 순식간에 그 음식을 통째로 집어삼켰네. 비르지니는 그녀가 배불리 먹는 것을 보면서 말했다.

“가여운 사람, 딱하기도 하지! 당신 주인에게 당신의 용서를 구해주고 싶어요. 당신을 보면 그 사람도 동정심에 마음이 움직일 거예요. 저를 그분 집까지 데려다 주시겠어요?”

흑인 여자는 그 즉시 대답했네.

“하느님의 천사여, 당신께서 가고자 하시는 곳이라면 어디든 따르겠습니다.”

비르지니는 오빠를 불러 같이 가달라고 부탁했어. 도망쳐 나왔다는 그 노예는 이리저리 오솔길을 따라 두 사람을 데려갔고, 그들은 그렇게 숲 한복판을 지나, 갇은 고생을 해가면서 높은 산들을 기어올랐지. 산을 넘어선 뒤에는 걸어서 넓은 강들도 건넜다네. 마침내 정오가 다 될 무렵, 그들은 흑장 변두리에 있는 언덕 아래까지 닿았다네. 거기서 그들은 으리으리하게 지어진 집과, 막대한 플랜테이션 농장, 그리고 수많은 노예들이 온갖 일을 하느라 분주한 모습을 보았지. 노예들의 주인은 입에 파이프를 물고, 손에는 등나무지팡이를 쥐고서 그 사이를 거닐고 있었네. 그는 울